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 중단하라

8월 28일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통합진보당 활동가 3명을 체포했다.

터무니없게도 박근혜 정권은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활동가들에게 수십 년간 사문화돼 있던 내란음모 혐의까지 씌우려 한다.

이들은 이석기 의원 등이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파괴를 모의했다”,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등의 황당한 말을 언론에 퍼뜨리고 있다.

국정원이 은근슬쩍 증거도 없고 확인도 안 된 피의사실을 흘리면, 조종동과 종편이 이를 각색해서 하루 종일 틀어대고, 일베충들이 어마어마하게 부풀리고 있는 것이다.

NLL 몰타기 때와 마찬가지로 또 ‘이석기 녹취록’이 등장했다. 조작이 의심되는 이 녹취록에도 막상 이석기 의원의 ‘총기를 준비해서 주요 시설을 타격하자’는 발언은 없다.

게다가 김형태 변호사는 “설령 그런 말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실현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한 말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는 게 법적으로 무리라는 말이다.

황당무계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우파는 이 녹취록을 마녀사냥의 무기로 한껏 우려했고 있다. 온갖 황당무계한 주장들도 쏟아지고 있다. ‘이석기 의원 집에서 이민위천(백성을 하늘처럼 섬긴다) 액자가 발견됐는데 이것은 김일성 좌우명이다’, ‘모여서 적기가 노래를 부른 것을 봐도 이들의 내란음모 사실을 알 수 있다’ 등.

그러나 이민위천은 사마천이 사기에서 쓴 말이고, 적기가는 독일 민요에서 유래해 일제시대 항일 투쟁부터 불려 온 노래다.

통합진보당을 이처럼 혐오스러운 집단으로 만들어 낸 결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우익 단체들이 모여서 이석기 의원과 이정희 대표 화형식을 하고, 당사에 난입해서 폭력 난동을 부렸다. 심지어 부산에



‘반동음모혐의’로 처벌돼야 할 ‘유신 퇴물들’ 박근혜의 비서실장 김기춘, 법무장관 황교안, 국정원장 남재준.

서는 우익들이 ‘통합진보당인 줄 알았다’며 촛불 집회 참가자를 총기로 위협하기까지 했다.

이런 대대적 마녀사냥은 사실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다. 임기 초부터 박근혜는 ‘미스터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황교안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 게다가 최근에 박근혜는 유신헌법을 기안한 ‘원조 공안검사’ 김기춘을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국가보안법의 칼을 수시로 꺼내 들며 ‘종북’ 마녀사냥을 하려는 뜻이 분명했

던 것이다.

그리고 결국, 국정원 게이트에 항의하는 촛불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대대적 반격을 시작한 것이다.

집권 반년 동안 박근혜 정권은 온갖 공약 파기와 재벌 퍼 주기 때문에 분노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국정원 게이트 속에 통치의 정당성도 의심받고 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더러운 몰타기가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은 박근혜 정권이 민주주의와 우리

의 삶을 유린하는 것에 분노한 모든 이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마녀사냥을 통해 저들은 우파를 결집시키고 진정한 문제를 가리고 싶어한다. 오락가락하는 민주당이 또 ‘종북’ 공세에 굴복해서 촛불의 뒤통수를 치기도 바랄 것이다. 이미 민주당은 “사실이라면 용납될 수 없는 충격적 사건”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역시나 한심하게도 촛불집회와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더러운 조작 · 왜곡 · 몰타기의 달인들

우리는 박근혜 정권과 국정원이 어떤 얘기를 꾸며낼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마녀사냥을 반대해야 한다. 저들은 진실을 왜곡하고 온갖 사건을 조작하는 데 도통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은 저 악명 높은 1991년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한 우두머리다. 당시에 ‘혹시 사실 아닐까’ 하고 강기훈 씨를 의심했던 많은 사

람들도 나중에 크게 후회했다.

노무현 정권 때 ‘일심회’ 사건도, 이명박 정권 때 ‘왕재산’ 사건도 나중에 터무니없는 조작과 왜곡이 밝혀진 바 있다.

얼마 전 한 탈북민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다 ‘간첩 혐의’로 구속됐는데, 이것도 국정원이 피고의 여동생을 협박해 만든 조작으로 드러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내란음모’도 마찬가지다. 박정희가 바로 이 혐의로 인혁당 사건을 조작해 1975년 8명을 사형시켰고, 1980년 광주 항쟁을 피로 짓밟은 전두환이 조작한 것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었다.

수년에 걸쳐 불법 사찰과 도·감청을 한 이번 사건도 고작 나온 게 ‘1백여 명이 파출소 털어서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허무 개그이다.

촛불을 갈라놓으려는 인간질에 흔들리지 말아야

박근혜 정권과 부패 우파는 진보진영 내부를 갈라치는 데 마녀사냥을 이용하려 한다.

따라서 우리는 ‘종북’ 프레임 거부해야 하고, 정파를 초월해 맞서야 한다.

동의하기 어려운 잘못된 입장이라는 이유로, 사상·표현·정치 활동의 자유를 방어하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비판적 견해 때문에 이런 방에 망설임이 있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공동의 적에 맞선 투쟁 속에서 동지적으로 토론·비판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공안 탄압이야말로 운동 속에서 이런 비판과 토론이 이뤄지기 어렵게 만든다.

그 점에서 진중권 씨 등 일부 인사들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고 방어하기 어렵다’, ‘진보당은 수사에 협조하라’, ‘촛불과 연결시키지 말자’ 등의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걱정스럽다.

이런 태도는 탄압하는 부패 우파의 기를 살려주는 반면, 탄압받는 사람들을 좌절케 한다.

시대착오적인 마녀사냥을 통해 운동을 분열시키고 탄압하려는 지배자들에게 뽀뽀 뽀뽀해서 맞설 때다.

공안 탄압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 본격화의 신호탄

박근혜는 당선 직후 복지 공약을 노골적으로 내팽개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킬 생각도 없는 모순을 겪어왔다.

실제 세계개악안 발표 이후 2주 동안 껄껄 조사에서 박근혜 지지율은 10퍼센트나 추락하기도 했다.

이런 불만이 ‘국정원 게이트’ 항의 촛불과 결합하면 파괴력은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박근혜는 전두환 뒤지기, 4대강 텅길 등 물타기와 꼬리 자르기로 위기를 벗어나려는 술수를 부려 왔다. 세계개악안과 철도 민영화 강행 추진을 잠시 멈추며 시간을 끌려고도 했다.

그런데 지난해 우파가 뽀뽀 뽀뽀하고 국정원이 뽀뽀까지 달면서 박근혜를 밀어준 이유는 노동자·민중을 쥐어짜면서 경제 위기를 돌파하려는 데 있었다.

그래서 박근혜는 유신의 망령을 꺼내서 되살리려는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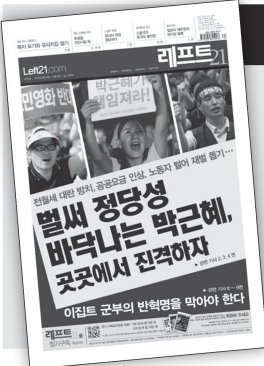
국정원이 진보당을 텅고 있던 그 순간, 박근혜는 10대 재벌 총수들과 만나 “기업인 여러분이 국정원의 동반자”라며 손을 맞잡았다. 재벌 총수들은 “규제를 풀어달라”(이건희), “국내 임금이 너무 높다”(정몽구) 하며 앓는 소리를 했다.

박근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돼야지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입법이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며 화답했다.

따라서 박근혜는 경제민주화 용도폐기, 복지 확대 포기, 노동자 쥐어짜기를 더 강화할 것이다. 마녀사냥은 이런 방향으로 진격하겠다는 선전포고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정원 게이트를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뿐 아니라 마녀사냥에도 맞서야 한다. ‘국정원 대선개입 시국회의’는 촛불의 명분을 훼손하고 분열을 노리는 공안 탄압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노동자와 촛불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동자연대다함께의 **선명 진보 신문**

국제주의·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노동자 연대

레프트21을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http://www.left21.com>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left21@left21.com | 웹사이트에서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제국주의 패권을 위해 아랍 혁명을 왜곡시킬 미국과 서방의 시리아 공습 반대한다

미국 등 서방은 ‘시리아 아사드 정부가 화학무기 사용이라는 레드 라인을 넘었다’는 핑계로 시리아를 공습하려 한다.

그러나 미국 지배자들이야말로 화학무기 사용이라는 “레드 라인”을 번번이 넘어온 장본인이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0.15그램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다이옥신이 포함된 고엽제를 엄청나게 뿌려댔다.

2004년 이라크 침공 때도 미국은 인체에 닿으면 뼈가 드러날 때까지 살을 태우는 물 질인 백린을 사용했다.

게다가 서방의 군사 개입은 독재자의 학살 등을 막아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왔다.

멀리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미국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낳은 끔찍한 결과만 봐도 시리아에 대한 서방 개입이 낳을 결과는 뻔하다.

미국과 서방이 진정으로 목표하는 바는 따로 있다. 아랍 혁명으로 미국의 중동 지역 핵심 동맹국인 이집트가 크게 흔들리고 쿠웨이트, 바레인의 친미 독재자들이 흔들려 왔다. 여기에 시리아의 아사드까지 민중 혁명으로 무너지면 이 지역에서



“시리아에서 손 떼라” 영국에서 열린 시리아 공습 반대 집회.

미국의 패권은 더 위협받을 것이다.

결국 ‘화학무기까지 사용하는 독재자의 제거’가 아니라 ‘아랍 혁명 독도질과 제국주의 패권 회복’이 서방의 진정한 목표인 것이다.

게다가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속에 불거진 아랍 혁명은 유럽 노동자 총파업, 미국의 ‘점거하라’ 운동 등으로 불길처럼 번져왔다. 서방은 이 불길도 끄고 싶어한다.

이집트 군부가 민간인 학살과 반혁명 공

세를 시작한 상황에서, 미국이 시리아 폭격을 결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과 서방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이라크의 악몽에 짓눌려서 계속 시리아 공격을 주저해 왔다.

더구나, 8월 29일 영국 의회에서는 시리아 공습안이 부결됐다. 전 세계 반전운동이 구축해 온 강력한 반전 여론의 덕이었다. 미국 내에서도 시리아에 대한 군사작전 지지 여론은 9퍼센트에 불과하다.

물론 제국주의자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시리아 민중만 희생시키며 혁명을 왜곡시킬 서방의 군사 개입을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독재 정권을 무너뜨릴 진정한 힘은 제국주의 미사일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민중 투쟁에 있다.

모임시대		
공약 파기, 국민 기만, 박근혜 정부 규탄,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국정원 정치공작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전국 동시다발)	집중 촛불대회	
일시: 9월 7일(토) (시간·장소는 지역별)	9월 7일(토) 오후 7시 장소: 미정(추후 공지)	
서울대회 시간·장소: 오후 4시 서울역 광장	9월 13일(금) 오후 7시 서울 시청 광장	
주최: 민주노총(지역은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	주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 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	